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입당 환영식에서 설훈, 오영환 의원(왼쪽 세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설훈·오영환, 새로운미래 입당

현역 5명... 선거보조금 수령 기준 충족
오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약속 유지
설 의원 "오 의원에 힘 보태고자 입당"

설훈·오영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올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의원의 입당식을 열고, 합류를 환영했다. 둘의 합류로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3명(김종민·박영순·홍영표 의원)에서 5명으로 늘었다.

두 사람이 입당하면서 새로운미래는 선거보조금 수령 기준인 원내 5석을 충족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끼주기'를 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6석)보다 새로운미래가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면, 총선에서 최소기호 5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의원 임기 막판 당을 옮겨 제3지대 정당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미래를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더이상 결코 피해자, 희생자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새로운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가능성이자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오늘날 정치협조를 조장하는 거대양당의 갈등 속에서, 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께 선택권을 넓혀드리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책임

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국민의 고통이며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며 "우리의 고향 민주당이, 다시금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바로 세우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그날까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에 밝혔던 22대 총선 불출마 약속은 변함없고 본업인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출마를 선언한 광주 광산을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당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자신의 현역 지역구였던 충남 논산·계룡·금산군을 떠나 세종갑에 도전하고, 박영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재선을 노린다. 4선인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에서 5선에 도전하고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서 6선에 도전한다.

설훈 의원은 입당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 민주당은 최근의 '전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서 보듯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새로운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저 또한 오늘 새로운미래에 동반 입당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행안부, 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9일부터 3월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판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newsis@

박용진,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 '노무현 비하' 양문석, 버티기 돌입

'막말논란' 정봉주 후보 공천취소
박 "30% 감산, 무리한 유권해석"
조수진 변호사와 2인 경선 진행
양, 노 전 대통령 비판 칼럼 논란
"전 당원 투표, 기꺼이 감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판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칼럼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 끝에 막말 논란으로 당에 의해 정봉주 후보가 공천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최고위는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절차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 후보와의 최종 2인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은 17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드린다. 들리리를 서라면 들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하시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을 위해 기어 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 몸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 경선을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며 "강북을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노무현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고 양 예비후보에게 말했다. /뉴스시스

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1~2차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 30%를 안은 끝에 패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을에 대해 박용진 의원과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조수진 변호사를 2인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과거 한 매체 논설위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칼럼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 양문석 후보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한 소리'를 들었지만,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를 만나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양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비판 칼럼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제히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

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재재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입장을 내고 반발했고, 친문재인계인 윤건영 의원도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문석 후보는 과거 칼럼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으나,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이날 총선 후보자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전 당원들에게 양문석이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전당원 투표를 만약 당에서 결정해주시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고 다시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주제

오늘부터 3일간 서울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란 세션을 주제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예정이다.

17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18일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20

일 화상으로 개최되며,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 윤 대통령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2세션을 주제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민주주의 위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